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3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4부) 7시 30분 7시 30분
주요예배 (1부) 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3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4부) 7시 30분 7시 30분
주요예배 (1부) 8시 30분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7월 28일 (제700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9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지령(紙齡) 700호에 부쳐

나는 잔뿌리론에 대해 자주 말한다. 곧은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지만, 나무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은 잔뿌리라고.

나는 우리 교회의 곧은 뿌리다. 주님이 나를 이 교회의 초석으로 세워주셨기에, 나는 이 교회의 버팀목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도와 일하는 잔뿌리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이다.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 또한 조장·구역장들이 잔뿌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교회 건물이 없는 중에도 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면, 우리 교회 신문 또한 이 잔뿌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이 발간된 지 13년째다. 이 신문은 우리 교회의 역사요, 일지(日誌)로서 뿐 아니라 천국의 광고지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우리 교회신문을 보고 희식하는 자도 있고, 이 신문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는 자도 있다. 또한 나로서는 늘 이 신문이 나를 채찍질하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몇 지령 700호를 맞은 교회신문. 감회가 새롭다. 하마터면 귀한 잔뿌리를 잘라버릴 뻔 했던 적도 있었다. 매주 신문을 만들어내는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그만 접을까 한 적이 있다. 그때 내 결의 참모가 "이제 달리는 말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까지 달려왔다. 돌이켜 보니 감사한 일이다.

나는 우리 신문이 태동할 때의 마음자세로 끝까지 항구여일하게 항진해줄길 바란다. 그래서 잔뿌리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수행하여 우리교단이 더욱 부흥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다.

후회 없는 여름을 기대하며

중부지방은 긴 장마로, 남부지방은 폭염으로 한반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7월의 뜨거운 여름. 이래저래 지치고 힘든 이 때, 한낮에 전해주는 얼음냉수처럼 반가운 것이 또 있을까? 여기 우리의 타는 갈증을 마음껏 해소시켜줄 얼음냉수가 있으니, 바로 4주 연속으로 진행될 하나님 말씀의 왕성한 천국잔치, 청소년 연합수련회와 하계산상집회다.

공부에 지친 어린 학생들에게, 취업준비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힘든 사회생활로 새로운 충전을 고대하는 젊은이들에게

또한 계속되는 하계산상집회는 해마다 우리 교단 전체가 영적 배터리를 가득 충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기 원하고, 응답 받기 원하고,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영적 해갈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대환영이다. 호텔 숙박은 사전예약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지만, 일반 숙소 및 식사는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금전적 부담감 없이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 교통편이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전화 1600-0688, 02-533-9191, 인터넷

은 없다. 어떤 색깔의 풍선이든 그 안에 수소만 불어넣으면 하늘로 날아오른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씨를 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생각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이 없지만, 또 생각보다 바꾸기 쉬운 것도 없다. 돈이 드는 것도,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미래가 꽃다발을 들고 박수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오늘, 지금 결단하기 바란다."



지친 여름, 우리 모두의 영적 배터리를 가득 충전해줄 청소년 연합수련회와 하계산상집회(7월 29일~8월 22일, 장성예루살렘기도원)

이번 제17회 전국 청소년연합수련회는 영적 재충전의 기회일 뿐 아니라 미래의 꿈과 비전을 계획하는 인생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전환점)가 되리라 확신한다. 지난해부터 우리 연합수련회는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로 분리되어 각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령별, 세대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이 직접 강사로 뛰시며 각 세대에 맞는 메시지로 꿈과 도전을 심어 주실 것이다. 이미 청년·대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JC 아카데미를 통하여 목사님 메시지의 엑기스들을 접해왔다. 이번 수련회는 더욱 심도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확고한 뿌리 위에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기를 원하는 중·고등부, 청년·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넷 홈페이지 www.jcc.tv에 접속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목사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가장 낡았다, 대통령 낡았다, 장군 낡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아들 낡았다, 딸 낡았다고 할 뿐이다. 그 아들, 딸이 자라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위대한 결단에서 비롯된다. 인생의 기회는 이름표를 달고 찾아오지 않는다. 기회를 기회로 알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기사를 읽는 이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기대하며 위대한 결단을 시작하기 바란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의 불꽃에 휘발유를 부어주실 것이다. 흰 풍선, 노란 풍선은 날고, 검은 풍선은 날지 못한다는 법

성경에 보면 땅 속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13:44).

그 땅만 소유하면 그 속에 숨겨진 보화가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천국과 영생의 보화가 여러번 것이 된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보화를 캐내고, 영생의 천국을 소유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17회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후회없는 삶을 사는 젊은이가 되자!

일 시 | 중·고등부 2013년 7월 29일 ~ 7월 31일(2박3일)
대학·청년 2013년 7월 31일 ~ 8월 2일(2박3일)
장 소 |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18:1~27)

귀명창이 | 명창이다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녀아,
물 향라 저고리가 굵은비에 젖는구려.
왕거미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울
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옛노래입니다.
저는 노래 가사말이 ‘왕곰이 집을 짓는’
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거미 집을
짓는’이더군요. 자주 듣고 자주 불렀는
데도 제대로 못들은 겁니다.

어려본, 귀명창이 되어야 명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사가 선지자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 내라”(사43:8)고 했고,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막4:23)고 하신 것을,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경청(傾聽),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의 가족이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미디안 땅을 지날 때, 그의 장인이 사위의 소식을 듣고 딸 심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양이나 치킨 예전의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으니, 부녀자를 합해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함은 물론이고, 영적 지도자로서 그의 위엄이 대만했습니다. 더욱이 그 대단한 사위가 겸허하게 장인 이드로에게 출애굽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을 소개합니다. 이드로는 사위 하나를 잘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를 보니 얼굴이 빨갛

밥이 육체의 보약이듯
충언은 영혼의 보약이다

하니 피곤이 절어 있었습니다. 보기도 아까운 사위가 왜 그런가하고 유심히 살펴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하고 재판하느라 진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이만큼저 만큼 자라는 일부터 대가까지 모세를 만나려는 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만 지친 게 아니라 백성도 지쳐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그 순차를 기다리느라 거의 탈진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장인 이드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보게 사위, 나에게 미디안 족속을 통치해본 경험이 있지 않나. 내 경험에 의하면 지금 자네는 아주 비능률적으로 일하고 있네. 이대로 가다보면 자네와 백성 둘 다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게. 먼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을 잘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그리고 백성들 가

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흠이 없는 사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백성들 위에 십부장과 오십부
 장, 백부장, 천부장으로 세우게. 그리하
 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
 을 재판하게 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만
 자네에게 가지고 오게 하게.”

모세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출18: 24). 이것이 모세가 진정한 영장(英將)인 이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출해내라는 하나님의 명을 직접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신을 섬기는 장인의 말에 코웃음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인의



말을
경청하
고 합당하
게 여겨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
서 명실 공히 훌륭한 행정, 사
법조직을 갖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유능한 장군으로 국왕과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구국공신입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는 진물이 질질 흐르는 나병환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나를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왕의 소개장을 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씻으라고만 합니다. 그것도 사환을 통해서요. 맨발로 뛰어나와 납작 절하며 대단한 처방이라도 내려줄 줄 알았던 나아만 장군은 심한 모욕감에 다 쓸어버리고 회군하려 했습니다. 이 때 옆에서 지켜보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왕하5:13). 나아만 장군은 종들의 말을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귀명창이 되면 명창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을만한 귀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육
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귀가 짝 막힌 자들이 있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라고 말할 하지 않습니까? 교만
과 이질, 욕심에 가득해서 귀가 막힌 사
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
이 나중에 실패하고 나
서, 망하고 나서
꼭 하는 말
이 있습
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더니!” 그러나 아닙니다. 개는 짖었는데 당신이 귀가 막혀서 못들은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꿋꿋함이 막힌 사람을 말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길르앗과못을 놓고 싸우려 할 때, 미가야는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되레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가더니 죽고 맙니다. 꿋꿋함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왕상22).

당대에 최대 제국 바벨론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의 교만함을 나루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해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에 콧방귀를 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팔뚝때로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단4).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분별력이 없어 노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젊은이들 말에 놀라니라, 비극을 맞이하였고 남유다로 분열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니다(왕상12).

예수님에게 순대지 말라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던 빌라도, 모태에서부터 나신인으로 성별되어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이방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머리털이 밀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삼손, 사무엘 선지자의 말

천하를 다스리려 애쓰기보다
먼저 나를 다스리기에 힘써라

을 가볍게 여긴 사울... 이들이 모두 귀
가 막힌 자들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조언해줍니다. ‘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조언해줄 때 좀 들으면 좋으면만, 안 들고는 망하고, 이혼하고, 실패해서 울면서 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그 이상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고전 10:6).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다듬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첫 닭 우는 소리에도 깨달은 배드 로처럼, 난 단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 한 다윗처럼 귀를 열어 들으세요. 또한 시아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종한 룻처럼 귀명칭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똥을 누는 자를 보더니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길 한 복판에 똥 누는 자를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제자들이 왜 그런지 묻자 공자 왈, “가능성이 없는 놈에게는 충고도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잠9:8).

누군가 당신에게 충고나 쓴 소리를 하는 것은 먼저는 당신을 사랑해서이고, 둘째는 당신에게 여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열고 들을만한 귀가 되십시오.

여름산상집회 때 기도원에 가면 성전 벽에 있는 귀 모양의 조각상을 꼭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는지 보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700회 교회신문, 하나님께 영광!

13년 5개월 5일, 4,900일, 700주,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모두 예수중심 교회 신문이 창간되고 지나온 세월을 의미합니다. 2013년 7월 28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수중심교회 신문이 드디어 지령 7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오랜 세월동안 중단 없이 신문이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수많은 봉사자들이 신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쏟아 부웠기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신문을 창간하고 봉우칼럼, 시, 설교말씀 등 신문의 많은 부분을 주관하는 교회신문의 1등 공신 이초석 목사님, 서울교회 담임과 설교로 바쁜 와중에도 명품 객원칼럼으로 우리의 심령을 화개해주는 이시대 목사님, 강북교구를 담당하며 목회에 심신을 쏟는 가운데에도 매주 시간을 내어 Good News와 Q&A로 정갈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는 상화평 목사님, 경기 예수중심교회를 섬기시며 풍부한 지식을 객원칼럼에 실어주시는 신현명 목사님, 목사님의 해외전도사역 상황을 실제로보다 더욱 실감나게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객원칼럼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한은택 전도사님, 대학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매주 '귀를 기울이세요'로 우리들의 귀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신재식 전도사님, 대치동에서 학원경영과 청소년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우리 신문

의 발전과 문서선교부의 단합을 위해 몰심양면으로 봉사하고 'Edu Section'으로 청소년 교육의 표류를 제시하는 오자유 집사님, '나도 건강할 수 있다'를 통해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건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 조희경 집사님, 역시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코너를 통해 명료하고 신선한 건강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레인 리더의 한의사 설계현 집사님, 무역업을 경영하면서 그 경험과 해박한 경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에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객원칼럼을 통해 우리에게 경제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임윤석 집사님, 매주 수요일 진행 중인 'JC Academy'의 내용을 아름답고 명료한 영적 필체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국진 자매님,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면서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삶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신은혜 자매님, 119 구급대에서 중국어 통역업무에 열심을 다하면서 '성경에서 배운다'를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쉽고도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하인명 자매님, 고려대학교 국문학 박사과정에서 학업하고 모친이 경영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병행하는 주목아경의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문화와 문화의 간접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전훈지 자매님,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아름다운 색과 친근한 디자인으로 신은혜 자매님의 짧고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신문에

서 가장 아름다운 화면 'Jesus mania by Shin'을 만들어 주는 신은유 자매님,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명문 NYU(New York University)의 대학원에 공부할 예정인 'Healing in Music' 코너의 김슬아 자매님, 자폐와 발달장애 및 정신분열증 등의 치료에 전념하면서 신문의 객원칼럼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전달하는 김영숙 자매님, 중·고등부 교사로 중·고등부 소식과 객원칼럼을 통해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창훈 형제님, 멀리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매주 만화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김문식 형제님, 그리고 객원칼럼, 교회소식 및 신앙간증 등으로 기고한 많은 기고자 등 모두가 오늘 우리 신문이 있게 만든 주인이자 공헌자입니다. 특히, 신문 디자인을 담당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문을 전달해주는 임지혜 자매님, 신문의 명품 사진 및 교정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고광위 형제님, 그리고 신문의 모든 내용을 실무 총괄하고 집필과 편집

등을 총괄하는 편집국장 신영심 집사님은 교회 신문의 중추적 봉사자입니다. 교회신문 발간을 주관하는 문서선교부의 임무는 각종 문서자료 제작을 통해 교단 및 교회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구현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문서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를 통한 교단과 민족, 세계를 위해 섬기는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중심교회의 선교활동을 국내외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수중심교회 신문 700호를 발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문서선교는 글 쓰는 것, 디자인, 만화, 각 분야별 전문가적 지식, 모든 연령층의 영적 경험과 삶의 지혜 등 모든 분야의 달란트를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많은 분들이 문서선교에 봉사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문서 선교팀 장로 이관섭



총회장 목사님과 문서 선교팀 팀원들

JC Academy series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인맥에 있다

지난 17일, JCA카데미에서는 멕시코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총회장 목사님의 열강이 펼쳐졌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인맥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맥은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요, 급할 때 돌려줄 수 있는 현금이요, 갈아탈 수 있는 말(馬)이다. 또한 인맥은 천재 열보다 낫고, 인맥은 금맥이다. 이 모든 말은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람은 인맥의 크기만큼 성공하게 되어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세 가지 기(氣)를 가진 자가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천기(天氣)요, 둘째는 지기(地氣)요, 셋째는 인기(人氣)다. 하나님도 심계명을 통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살

다보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이다. 성공하려면 노하우(know-how)가 있어야 한다지만, 나는 누구를 아느냐(know-who)가 더욱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선박 왕 오나시스는 ‘돈을 모두 잃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열심히 일해서 500달러가 모이면 500달러짜리 음식을 사먹겠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한 500달러짜리 음식이 바로 인맥을 뜻한다. 500달러짜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도 그런 위치로 진출하는 발판을 삼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맥은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그것은 먼저 신뢰에 있다. 약속을 잘 지켜야 인맥이 형성된다. 그것은 마치 거대

한 만리장성이 돌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돌과 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진흙이 필요한 것과 같다. 또한 정직한 자가 인맥을 늘려간다. 정직은 최고의 힘이며, 진실은 최대의 자산이다. 이것이 도대체 될 때 끊어지지 않고 넓은 인맥이 형성되어 갈 것이다.”

성경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잠11:30),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고도 말씀하셨다. 견실하고 폭넓은 인맥은 성공의 발판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심비에 새겨 하나님과 사람과의 튼튼한 관계로 영·혼·육의 성공을 이끄는 젊은이들이 되자.

이국진 기자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요사이 도처에서 ‘막달’ 논란이 연일 언론을 시끄럽게 달구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가히 상식적인 도를 넘은 수준인 듯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한 국가의 통수권자가 된 대통령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귀태(鬼胎)의 후손’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정치인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정치인은 기자들과의 오한 자리에서 지나친 성적(性的) 표현이 담긴 농담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여자들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 한 언론에서는 모 국내 항공사의 여객기 사고에 대해 ‘사망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형’이라는 말로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고, 대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들은 강의를 평가하는 인터넷 공간에 자신들을 가르친 교수에 대해 욕설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쓴다고 합니다.

‘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세 치 혀로 나라도 구했다는 데, 요즘은 입술과 혀를 잘못 놀려서 오히려 빚을 지고 국가와 개인의 품격까지 떨어뜨리는 등, 화(禍)를 자초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 그대로 ‘막 말을 뱉기 전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입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재식 전도사

blessednrio@naver.com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건
마귀도 귀신도 불신자도 아닙니다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번사에 내 자신으로 섰한 의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함이라
디도서 2:7~8

Jesus mania by shin

::교단소식::

북한선교의 전초기지를 세워라



문산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2013년 7월 28일)

마치 하늘 문이 열린 듯 빗줄기가 쏟아진 지난 23일, 북한과 근접한 문산에 예수중심교회가 새로 세워졌다.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로 시작된 창립예배에서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은 직업 이상의 사명감을 가지라고 강조하셨다.

"오늘 나에게 생각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폭우 때문입니다. 이 비가 멈춰야 창립예배를 드릴 텐데 하며 몇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비가 멈춰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폭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오면서 생각이 깊었습니다. 이 문산 예수중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개성이 국제 도시가 되면, 더 나아가 통일의 문이 열리면 이 문산 교회를 북한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권종성 전도사와 민운우 전도사가 나에게 찾아왔던 때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들에게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고 진실한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해명과 변명할 생각을 말고 나중에 열매로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복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 기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이 문산 예수중심교회입니다.

나무가 크면 가지는 절로 크게 되어 있고, 열매 또한 실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농부인 하나님은 오직 포도나무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나무가 커야 가지도 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질 때 가지도 튼튼해지고, 그 가지에 실한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지역의 권력자나 지력자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는 없지요.

그리고 나는 권 전도사나 민 전도사가 선한 목자가 되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사의 차이는 이리가 나타나면 알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지만, 사꾼은 자기 살기 위해 도망치기 바쁘고, 양을 팔아 돈 벌 생각만 합니다. 문산 교회의 두 전도사는 분명 선한 목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 돈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이상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리라 믿습니다. 죽은 나무와 산 나무의 차이는 새가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입니다. 또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벌과 나비

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입니다. 이 두 전도사가 진실한 주의 종이면 산 나무에 새가 찾아오듯, 생화에 벌과 나비가 오듯 성도들이 물려를 것입니다. 목사도 나무일진대 바로 서면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권 전도사나 민 전도사가 분명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이 문산 교회를 우뚝 세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곧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빌딩이 올라가듯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서고 부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이나 죄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물어보세요. 욕기서 8장 8절에 '옛사람에게 물으며 그들의 터득한 것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참된 종이 될 것이며, 빨리 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과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묵화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교회가 북한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교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 날 뜻있는 목회자와 장로 및 많은 성도들이 창립예배에 참석했고, 함께 통성전 기도했다. 분명 이 기도소리가 휴전선 넘어 북한의 하늘까지 뒹겼으리라. 현직 권사의 '선한 목자' 찬송은 두 전도사의 것이 되고, 장연숙 전도사의 '열려라 예배당'은 두 전도사의 앞길을 축복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창립예배였다. 복음을 믿고 북한으로 달리는 기차의 레일을 까는 역사가 분명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Q&A

Q: 타 교회에 출석하는 암 투병중인 성도입니다. 친구를 따라서 작은 기도원에 가서 원장이라는 분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 그런데 그분은 치료와 약 먹는 것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불신앙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각종 병을 고친 기사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 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를 받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며, 이 시대 이 역사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믿음도 각자의 분량이 다릅니다. 기도만 받고 고침을 받는 자가 있고, 기도를 받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고침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불신앙의 행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며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위의 성경 본문에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의 기름은 오늘날의 '약'입니다. 약도 주의 이름으로 써야 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모두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엄마 손은 약손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엄마가 아픈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 곧 통증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영험한 약손'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근래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신비로운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영국의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자녀의 신경조직을 자극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발육을 촉진한다."고 보도했다. 즉 어머니가 아이를 쓰다듬어주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아주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감정을 뇌에 전달하는 신경조직이 인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 자세히는, 이 같은 신체적접촉이 피부의 신경세포를 따라 천천히 뇌 조직에 전해

지며, 대뇌의 사랑과 성적 흥분을 느끼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전달된다고 한다. 손바닥처럼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신체 부위는 자극을 뇌신경에 전달하는 굵은 신경세포가 발달해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우리의 손은 모든 것을 살리는 기(氣), 곧 생명에너지가 모이고 작용하는 통로이다.

애정 어린 엄마 손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인한 복통 시 손바닥을 펴서 복부를 상하로 자연스럽게 누르거나 쓰다듬어준 뒤 배꼽 주위를 시계방향에 따라 원을 그리며 가볍게 문지른다. 3세 이상의 어린이가 수면 중 오줌을 자주 싸는 야뇨증에는 하복부의 단단 부위를 돌리면서 주무르고 비벼주기를 반복한다. 식욕부진 완하나 성장발육을 위해서는 등의 척추부위를 수시로 쓰다듬어 주고 복부를 상하 또는 시계방향으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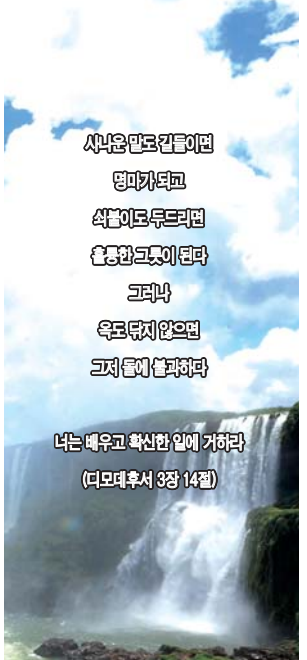
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르기를 반복한다. 어머니의 따스한 손은 아껴주고 살려주고 북돋아주고 이끌어주고 용서하고 건강하게 하는 자비의 손이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막8:23-25).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많은 불치병 환자를 고치셨지만, 때로는 직접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셨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따뜻한 손길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보듬어주자.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가져올 것이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사나운 만도강물이면

명마가 되고

석벽이도 두드리면

흔들완 그릇이 된다

그러나

옥도 다치지 않으면

그저 돌에 찰라하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